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조금호

서강대학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인간 이해의 양식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두 문화권에서의 대인평가와 귀인 양상의 차이를 개관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의존성·자기 억제·행위의 가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평가에서 조화성·양보 및 협동·노력의 특성을 중시하며, 결과적으로 귀인 장면에서는 상황귀인·결양 편향·성취 결과의 노력 귀인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율성·자기 주장·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인평가에서 독특성·적극성 및 경쟁·능력의 특성을 중시하며, 결과적으로 귀인 장면에서는 성향 귀인·자기고양 편향·성취 결과의 능력 귀인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는 두 문화권에서의 인지, 정서, 동기의 제반 측면에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고찰되었다.

사회심리학의 최근 흐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회성의 회복 운동”이다. 사회심리학은 명색이 “사회적 자극의 함수로서의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Jones & Gerard, 1967, p. 1)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심리학은 실험실에서 조작된 가상적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사회 행동의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려는 패러다임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민경환, 1986). 그리하여, 사회심리학은 일반심리학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서 “비사회적인 사회과학”(nonsocial social science; Shweder, 1990, p. 20)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심리학에서 ‘사회’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반성이 제기됐던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사회심리학계에서의 “사회성의 회복 운동”은 바로 이러한 반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문화적 존재구속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다(Gergen, 1985; Shweder, 1990; Shweder & Bourne, 1984; Shweder & Miller, 1985 등). 이는 그동안 사회심리학이 추구해 왔던 인간의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리의 추구가 근본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각성을 낳게 했고, 그 결과 인간의 심리 과정과 행동에 미치

* 본고는 1995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 심리학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된 필자의 선행 줄고(1995b)를 본고의 목적에 맞도록 대폭 수정하고, 또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는 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탐구가 최근 사회심리학 연구의 특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널리 읽히는 사회심리학 교과서 중의 하나인 Sears 등의 교과서 제8판(Taylor, Peplau, & Sears, 1994)에서는 제7판(Sears, Peplau, & Taylor, 1991)과는 달리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s)을 동기 이론, 학습 이론, 인지 이론, 의사 결정 이론, 사회 교환 이론과 함께 사회행동을 설명하는 6가지 중요한 이론 체계 중의 하나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또한 매 장마다 “문화적 초점”(cultural highlight)이라는 별도의 난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문화적 관점의 연구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인간을 이해하는 데 공헌한 기본적인 사회심리학의 관점을 정리하여 소개한 Ross와 Nisbett(1991)도 사회 행동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기술하는 장(제7장: 문화의 사회심리학)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문화 연구에 쏟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열성을 짐작케 해주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와 인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타인 이해(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 연구의 기본틀이 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Kagitcibasi, 1994; Kim, 1995)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인해 보고, 이어서 이 두 문화권에서의 대인평가와 귀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문화와 사회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문화 연구의 기본틀

사회심리학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Schlenker, 1974; Shepard, 1987; Shweder, 1990) 아래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전통적인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이 지향해 왔던 인간의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원리의 추구가 본질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Gergen(1973)에 이은 일련의 논쟁(Manis, 1975, 1977; Sampson, 1978, 1983; Schlenker, 1974; Triandis, 1978 등)을 거쳐 인간의 문화적·역사적 존재구속성(Gergen, 1985; Shweder, 1990; Shweder & Bourne, 1984; Shweder & Miller, 1985 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민경환, 1986; 한규석, 1991a, b; Pepitone & Triandis, 1987).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보편성 추구의 허구성에 관한 논거는 다음의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조금호, 1993 참조). 그 하나는 기존의 심리학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밝혀진 많은 원리들이 실상은 서구인, 특히 미국 백인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문화 특수적인 것일 뿐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Gergen & Gergen, 1988; Gilligan, 1982; Markus & Kitayama, 1991a, b; Sampson, 1977, 1989; Schwartz, 1986; Zebrowitz, 1990 등). 다른 하나는 사회 행동의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 심리학의 입장이 목적론적 관점(teleological viewpoint)이 갖는 오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Bond & Hwang, 1986; Miller, 1984 등).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사회심리학은 탈맥락화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관점(서구식 개인주의의 관점)에 함몰되어 대상을 인식하는 자아중심성”(이수원, 1990, p. 63. 팔호안은 필자의 삽입)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역사적·문화적 존재구속성이라는 인간 행동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이 “서구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탈중심화할 필

요”(Brislin, Lonner, & Thorndike, 1973, p. 37)가 있다. 그리하여, 사회심리학은 “현대 세계의 인류학이 되어야 하며”(Moscovici, 1981a, p. viii), “사회심리학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과업”(Gergen, 1973, p. 316)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회심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비교 연구(예: 공수자, 한규석, 1996; 남기덕, 1994; Kim, Triandis, Kagitcibasi, Choi, & Yoon, 1994 등), 토착 심리학 연구(예: 이수원, 1984; 최상진, 1990, 1993; Bond, 1986; Yoon & Choi, 1994 등) 및 전통 사상의 심리학적 해석 연구(예: 조공호, 1990, 1991, 1994, 1995a; 한덕웅, 1994 등) 등이 가지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사회심리학자들이 문화의 개념을 그들의 이론적 개념들 속에 포함시켜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Doob, 1980). 이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내용 규정의 애매성과 문화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차원 설정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르는 방법론적인 곤란성(Bond & Hwang, 1986; Hui, 1988; 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90 등) 등에 그 까닭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부딪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분류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 연구의 개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들에서 문화 간 차이를 조감하는 다양한 체계가 제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Hofstede(1980)의 66개국(53개 문화권)에 걸친 광범위한 비교 연구 이후 Triandis(1988, 1989, 1990)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명시적으로 제시된 집단주의-개인주의(collectivism-individualism)의 분류 체계이다. 이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분류 체계는 이 이후 문화 비교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어 1980년대 이래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

였다. 이러한 사실을 Kagitcibasi(1994)는 “1980년대는 문화 비교 심리학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시대였다”

(p. 52)고 표현하고 있다.

한 사회의 문화를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들은 그 내용적 유사성에 따라 다음 몇가지로 묶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교환 관계에서의 교환 자원, 목표 및 교환에 관한 시간 전망 등 교환의 양식의 기준이다(예: Clark & Mills, 1979; Fiske, 1990; Goffman, 1961; Maine, 1963; Mills & Clark, 1982; Toennies, 1957 등). 비록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집단주의-개인주의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분류에서 장기적 시간 전망을 가지고 비동가적인 가치의 자원을 상대방과의 조화 추구 또는 상대방의 복지에의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교환하는 관계는 집단주의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단기적 시간 전망에서 동가적인 경제적 가치의 자원을 공정 관계 형성 또는 자기 이익 추구라는 관심과 합의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교환하는 관계는 개인주의의 특징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다(Triandis, 1990).

둘째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 정도의 기준이다(예: Hofstede, 1980, 1983, 1991; Hsu, 1971; Schwartz, 1986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타인과의 연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 생활에서의 타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자율적·독립적이며 상황과의 분리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이러한 점은 “이 차원(개인주의-집단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사회가 옹호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정도이다. 이는 사람들이 ‘나’(I)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We)의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Hofstede, 1983, p. 83)는 기술에서 잘 드러나 있다.

셋째는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의 기준이다 (예: Hui & Triandis, 1986; Triandis, 1988, 1989, 1990; Triandis, Bontemg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Yang, 1981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목표를 내집단의 목표에 복속시키며,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이어 강한 내집단 정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Triandis et. al., 1985) 내집단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고, 내집단 규범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지각하며, 내집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다 (Triandis, 1989, 1990; Triandis et. al., 1988). 반면에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목표 추구가 집단에 해가 되더라도 집단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자기를 집단과는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는 관심이 없으며,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는다 (Triandis, 1989, 1990; Triandis et. al., 1985, 1988).

넷째는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의 기준이다 (예: Bond & Hwang, 1986; Chung, 1994; Hui & Triandis, 1986;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이에 의해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는 각자가 이러한 관계에 내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써 유지된다고 본다 (정양은, 1988; 조공호, 1990, 1991, 1994, 1995a; Bond & Hwang, 1986).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궁극적 단위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궁극적인 존재론적 단위는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보며, 사회는 이러한 개별적 개체들의 복수적인 집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양은, 1988; Chung, 1994).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를 사회 제도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상호의존성을 사회 행위의 규범적 단위로 보게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이 나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을 사회 제도

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사회적(ssocial)인 개인을 사회 행위의 규범적 단위로 보게 되는 것이다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이러한 여러 기준들은 각각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보여진다. 왜냐 하면,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를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집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의 정도 및 개인 사이의 교환의 양상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결과적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개인주의 구분의 기본적 출발점은 바로 기본적인 사회 단위의 인식차 (Hui & Triandis, 1986)라는 전제에서 자기를 집단의 일부로서 파악하느냐 아니면 집단과는 별개의 독특한 단위로서 파악하느냐 하는 점을 기초로 개인과 내집단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차이를 정리해 낼 수 있다 (Triandis et. al., 1988)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두 문화유형 중 집단주의 문화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를 위시한 아시아 제국과 남미 대륙 및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 등 대부분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후진국에서 공통적인 문화유형이다. 유럽에서도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유고슬라비아 같은 남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비교적 집단주의적인 색채가 짙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는 미국을 위시한 북미 대륙과 북유럽의 국가 등 서방 경제선진국에서 공통적인 문화유형이다 (Hofstede, 1980, 1983, 1991).

관계중심적 인간관과 개인중심적 인간관 이러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인식차는 필연적으로 두 문화에서의 인간 일반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사회 관계 및 그러한 관계 속의 역할이라고 보는 집

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Dumont, 1970; 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등),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in press;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또는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을 갖게 되지만(Triandis, 1990; Weldon, 1984), 개인적 원망과 선호를 추구하는 자기 본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유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Miller, 1984; Miller & Bersoff, 1992; Sampson, 1977, 1989 등),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 Kitayama et. al., in press;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또는 사적 자기(private self; Triandis, 1989)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을 갖게 되는 것이다¹⁾(Triandis, 1990; Weldon, 1984).

1) Markus와 Kitayama(1991a, b)는 자기에 대한 해석 양식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상호의존적 자기와 상황과는 분리된 개별적 단위로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독립적 자기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전자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후자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각각 자기를 파악하는 기본 양식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Greenwald와 Pratkanis(1984)는 자기개념은 스스로가 보는 자신의 독특한 특성·상태·행동의 인식에 근거한 사적 자기, 일반적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견해의 인식에 근거한 공적 자기(public self) 및 특정 내집단 성원들이 보는 나에 대한 견해의 인식에 근거한 집단적 자기의 세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Triandis(1989)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이 중에서 집단적 자기개념이 우세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Tajfel(1981)은 사회 정체감 이론을 통해 개인은 스스로의 특성이나 능력에 기초한 개인적 정체감과 집단과의 동일시에서 느끼는 사회적 정체감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Weldon(1984)과 Triandis(1990)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정으로 등장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정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인간관은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 표현의 양식 및 행위의 변이가 능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조망을 받게 된다. 즉,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므로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타인에의 관심 및 배려에서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 속의 조화의 추구가 사회 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반면에 개인중심적 인간관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에게서 사회 행위의 원동력을 찾게 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의 추구가 사회 행위의 근본적인 목표라는 입장을 갖는다.

그리하여,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사회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게 되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자기를 억제하여 양보하고 협동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자기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개인 간의 경쟁과 공정한 교환을 강조한다.

또한,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관계의 안정에 근거한다고 보게 되고, 결국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따른 역할의 변이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하는 데에서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므로써, 행위의 상황에 따른 변이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사회의 안정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개인의 안정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게 되고, 따라서 각 개인은 지속적이고 일관되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 상황과 관계에 따른 변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러한 변이 또는 비일관성은 개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문화유형에 따른 이러한 인간 이해의 양식의 차이에서 도출되는 강조점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

표1. 문화유형에 따른 인간 이해 양식과 강조점의 차이

차 원	집단주의 (관계중심적 인간관)	개인주의 (개인중심적 인간관)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의존성 강조	자율성 강조
자기 표현의 양식	자기 억제의 강조	자기 주장의 강조
행위의 변이가능성	가변성 강조	안정성 강조

기완비적(self-contained)이고 자율적이며 독특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인 명제가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조화를 추구하는 상호의존적인 자기상의 추구가 문화적 명제가 된다. 집단적 구성주의(collective constructionism)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은 곧바로 개인의 심리적 경향으로 변형된다(Gergen & Davis, 1985; Gergen & Gergen, 1988; Kitayama & Markus, 1994, 1996; Kitayama, Markus, & Lieberman, 1995; Kitayama et. al., in press; Markus & Kitayama, 1994a, b 등).

집단적 구성주의는 이러한 변형과정에 대해 두가지 사실을 전제한다(Kitayama et. al., in press). 첫째, 개인을 독립적이거나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문화적 자기관(cultural views of self)은 해당 문화의 역사를 통해 오랜 동안 그 속에서 반복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s)을 산출해 낸다. 즉,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사회적 상황들은 독립적 자기관을 잘 드러내거나 또는 이에 합치되는 것이고,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사회적 상황들은 대체로 의존적 자기관과 합치되는 것이다. 둘째, 각 개인은 이렇게 구성된 문화 환경

(cultural environment)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문화의 문화적 자기관에 조율된 다양한 심리적 과정과 경향이 발달된다. 이렇게 집단적 구성주의의 분석은 주어진 문화 내에서 상황의 의미(situational definition)가 창조되고 선택되며 축적되는 역사적 과정(historical process)과 그렇게 역사적으로 구성된 문화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발달과정(developmental process)의 두 과정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의 특징과 개인의 심리적 과정의 특징 사이에는 밀접한 상응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구성주의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의 문화적 근거를 밝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Kitayama et. al., in press).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전술한 바대로의 문화유형에 따른 인간 이해 양식의 차이는 그대로 두 문화권에서의 심리적 과정의 차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의 문화심리학의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인지, 정서 및 동기의 제반 심리 과정은 그가 속한 문화의 함수로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예: Kitayama & Markus, 1994, 1996; Kitayama, Markus, & Lieberman, 1995; Kitayama et. al., in press;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Triandis, 1989, 1990 등). 즉,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

는 결국 사회 제도와 행위 규범의 근본적인 차이를 빚게 되어(Shweder & Miller, 1985) 문화권에 따른 인지·정서·동기의 제반 활동에서의 차이(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 이해의 연구와 문화 전통적 사회심리학이 지향해 온 보편성 추구 경향은 사회심리학의 핵심 연구 영역인 타인 이해 영역의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대상 인물에 대한 지각을 낳는 정보 특성과 그 내용보다는 대상인물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Asch(1946)와 Heider(1958) 이후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조궁호, 1986, 1993; Jones, 1985; Markus & Zajonc, 1985; McArthur & Baron, 1983; Zebrowitz, 1990). 이렇게 지각 내용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게 된 것은 지각 내용은 상황의 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지각 과정은 일관적이고 동일한 처리 절차가 다양한 내용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 지각 내용은 지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전제, 그리고 지각 과정의 분석은 그 내용의 연구에서보다 방법론적인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려 등에 그 까닭이 있었다(Fiske & Taylor, 1984). 그 결과 이 분야에서는 대상인물에 대한 정보가 처리되는 각 단계의 세부 특징의 분석이나(Fiske & Taylor, 1984) 대인 지각의 전체 과정에 걸친 단계 모형의 개발(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Wyer & Carlston, 1979)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 행동의 보편적 원리의 허구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또한 사회 상황에서의 사고 과정은 그 내용과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Pepitone, 1987; Shweder, 1990; Shweder & Bourne, 1984),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사회 추론 과정에 미치는 자극 정보 특성의 영향이 밝혀지므로써(Markus

& Zajonc, 1985; McArthur & Baron, 1983) 이러한 과정 중심의 연구 경향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타인 이해 연구 분야에서도 문화권에 따라 특출하게 제공되거나 탐색되는 정보 특성과 그로 인한 대인평가 내용 및 귀인의 차이의 분석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었다(Fiske & Taylor, 1991;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a, b; Zebrowitz, 1990).

지금까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각각 상황의존적·관계중심적 인간관과 상황유리적·개인중심적 인간관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 표현의 양식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조망을 낳게 됨을 지적하였다. 문화권에 따른 이러한 인간관의 차이는 타인에게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을 다르게 하고, 지각자는 이러한 특성에 지각적으로 조율되어 결국 타인이 제공하는 소여 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유발되므로써(McArthur & Baron, 1983; Zebrowitz, 1990) 타인 이해 양상을 다르게 할 것이다.

두 문화권에서의 타인 이해 양상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집단주의자들은 상황이나 관계 맥락적으로 사람을 지각하고, 개인주의자들은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지각한다는 사실이다²⁾. 이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타인에 대한 기술에서나(Korten, 1974; Miller, 1987; Shweder & Bourne, 1984; Zebrowitz, 1990 등) 자기에 관한 기술에서(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2) Ross와 Nisbett(1991)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경향은 역사적·철학적 배경이 깊어서, Mischel(1968)에 의해 개인의 지각된 성향과 실제 행동과의 상관이 기껏해야 .30을 넘지 않아 그 경험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한 Lewin 이후 사회심리학에서 행동에 미치는 상황적 요인의 영향이 개인적 요인의 영향보다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성향주의(dispositionism)라 부르고 있다.

1989 등)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두 문화권에서의 추론 양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과 연결성 확립이 분석의 목표인 설화적(narrative) 사고 양식이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추상화와 공통양상 분석이 목표인 범례적(paradigmatic) 사고 양식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Bruner, 1986).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과 관계에 의해 사물을 분류하는 종합적(synthetic) 사고가 인식의 주요 양식이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극의 요소를 추출해서 공통적인 측면을 추론하여 분류하는 분석적(analytic) 사고가 인식의 주요 양식인 것이다(Yang, 1986). 이러한 사고 양식의 차이는 두 문화권의 인간관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자들에게서 상황적·관계적 지각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해서 이들의 추상화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구체적인 몇 개의 행동으로 대상인물을 기술해 주고 그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성향을 추론하게 하면, 인도인 피험자들도 미국인 피험자들과 같은 수준의 성향 추론을 해낸다는 사실(Miller, 1987)과 성격 특성어들 간의 유사성 차원 분석에서 중국인·필리핀인·일본인 피험자들도 미국인 피험자들과 똑같은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Bond, 1979) 등에서 드러난다. 또한, Cousins(1989)는 미국과 일본인 피험자들에게 전형적인 자기 기술 검사(Twenty Statement Test; Kuhn & McPartland, 1954)를 실시하면 미국인 피험자들의 성향 기술 비율(약 60%)이 일본인 피험자들의 그것(약 20%)보다 높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 기술을 하도록 한 수정판 검사³⁾를 실시하면 일본

인 피험자들의 성향 기술 비율(약 40%)이 미국인 피험자들의 그것(약 25%)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자들이 성향 추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본적으로 상황 또는 관계 맥락적으로 자기와 타인을 지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Peevers와 Secord(1973)가 분류한 특성 차원 중에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깊이(depth) 차원에서 사람을 지각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descriptiveness) 차원에서 사람을 지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⁴⁾.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두 문화에서의 추상화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두 문화에서 요구되는 적응 가치의 반영일 뿐인 것이다(Zebrowitz, 1990). 즉, 집단주의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이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간주하므로 상황 범주에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깊이 차원에서 정교화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주의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이 행위자의 성향에 따라 변화한다고 간주하므로 성향 범주에 민감하고, 결과적으로 기술 차원에서 정교화가 이루어진 결과일 뿐인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대인지각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두 문화권에서의 대인평가와 귀인의 차이에 관한 연구 내용들을 정리하므로써 문화와 인지 사이의 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문화유형에 따른 대인평가의 차이

타인이해의 연구는 주로 인상형성을 주축으로 하는 대인평가의 문제와 타인의 행동 원인을 분석하는 귀인의 문제로 집중되어 왔는데,

3) Kuhn과 McPartland(1954)의 자기 기술 검사는 “나는...”이라는 문항을 20개 제시하고, 자기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자유 기술토록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수정판 검사는 “집에서의 나는 ...” “친구들과의 나는 ...” “학교에서의 나는 ...” 등 상황 속에서의 자기에 대해 자유 기술토록 한 것이다.

4) 여기서 깊이 차원은 행동을 상황·시간에 조건적으로 인지하는 정도이며, 기술 차원은 구체적 행동을 추상적·전반적인 성향의 반영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 Zebrowitz(1990)는 대인 기술 장면에서 개인주의자들은 기술 차원이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보이지만, 집단주의자들은 깊이 차원이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는 대인지각이라는 표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조공호, 1986; Schneider, Hastorf, & Ellsworth, 1979; Tagiuri, 1969). 이 분야의 연구는 앞서서도 기술하였듯이 최근까지만 해도 지각 내용보다는 지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ones, 1985). 즉,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타인의 성격 특성이나 행동 원인의 판단이 타인이해와 후속되는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성격 특성이나 행동 원인의 판단과 평가의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던 것이다(Zebrowitz, 1990).

이러한 대인지각은 대상인물이 제공하는 또는 대상인물에 대해 제공되는 자극 정보를 지각자가 수용하여 처리

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에 문화 비교 심리학 연구들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개인 존재 및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며,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대인평가의 과정과 그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a, b; Triandis, 1989 등)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타인이해의 일반적인 차이가 두 문화에서 요구되는 적응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Zebrowitz, 1990),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대인평가의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강조하는 특성이 달라질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차이는 전술한 바대로 두 문화권의 지배적인 인간관에 따른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자기 표현의 양식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조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문화권에서의 인간 이해의 기본 조망의 차이에 따른 이러한 세 차원에서의 강조점의 차이(의존성-자율성 강조, 자기억제-자기주장 강조, 가변성-안정성 강조)를 기초로 해서, 각각의 강조점의 차이에서 중시되는 대인평가 양상의 차이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조화성-독특성 중시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의존적인 관계 속의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의무를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므로써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및 조화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중심적 인간관이 지배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욕구, 목표, 원망, 성향 등)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므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독특성의 추구를 중요한 대인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추론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개념을 갖게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의 개념을 갖게 된다는 사실(Markus & Kitayama, 1991a, b),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도덕 판단의 근거를 사회관계에서의 타인에의 의존성에서 찾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적 개인의 권리에서 찾는다는 사실(Miller, 1984, 1986, 1991; Miller & Bersoff, 1992; Miller, Bersoff, & Harwood, 1990; Miller & Luthar, 1989) 및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적 자기가 규범적인 자기개념이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기가 규범적인 자기개념이 된다는 사실(Triandis, 1989, 1990)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두 문화권의 사람들이 중시하고 추구하는 특성의 차이를 낳게 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단의 동조에 가치를 두게 되고(Bond & Hwang, 1986; Chung, 1994), 따라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단결심과 겸양 및 조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그

결과 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어⁵⁾ (Bontempo, Lobel, & Triandis, 1990) 공적 자기(일반적 타인의 “나”에 대한 견해의 인식)는 집단적 자기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립성(self-reliance)에 가치를 두게 되고, 따라서 개인은 타인들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그 결과 공적 자기는 사적 자기의 연장이 되는 것이다(Triandis, 1989).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누구인가?”의 학습(집단 내에서의 위치 확인 및 내집단과의 동일성 추구)

5) Bond와 Hwang(1986)은 동조 행동의 문화 간 차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 성원과의 조화를 중시하므로 공개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이 대립할 때 개인적 신념을 포기하고 공개적 신념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따라서 동조 행동이 많아지므로 공개적인 의견이나 태도는 진실한 내면적인 의견이나 태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괴리 가설의 전제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내면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시키고, 개인 존재는 집단 속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므로써 집단 규범을 개인적 규범으로 받아들이 내면화하게 되고, 따라서 공개적인 의견이나 태도는 바로 개인에게 내면화된 가치의 반영이므로 진실한 내면적인 의견이나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Bond & Smith, 1996; Markus & Kitayama, 1991a, b, 1994b). 이러한 사실은 Bontempo, Lobel과 Triandis(1990)에 의해 직접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브라질(집단주의 문화)과 미국(개인주의 문화)의 피험자들에게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내집단의 규범이 요구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하겠는지(당위성)와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즐겁겠는지(유희도)의 두 차원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응답은 공개 조건과 익명 조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브라질 피험자들의 반응은 공개 조건과 익명 조건에 차이없이 당위성과 유희도에서 모두 높았음에 비해, 미국의 피험자들은 공개 조건에서는 당위성과 유희도를 모두 높게 평정했으나 익명 조건에서는 모두 낮게 평정하여 두 조건의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브라질인들은 내집단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기꺼히 따르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내면화 가설을 직접 지지해 주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들의 경우 내집단 성원에 대한 동조량은 미국인보다 크지만, 낯선 사람들에 대한 동조량은 미국인보다 작다는 결과(Frager, 1970; Matsuda, 1985)에 의해서도 거듭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사회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제가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의 학습(능력 확인 및 독특성 추구)에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고, 따라서 개인적인 소유(능력, 경험, 업적 등)에 의해 정체감이 정의되므로 개인적 정체감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Kitayama et. al., in press; Triandis, 1990; Weldon, 1984).

바로 이러한 두 문화권에 따른 조화 추구하고 독특성 추구 경향은 대인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타인을 평가하는 성격 특성 체계(implicit personality theory)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게서 찾아진 외향성(extro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신뢰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세련성(culture) 등 대인평가의 5대 차원⁶⁾(Norman, 1963) 가운데 중국인들에게서는 호감성과 신뢰성이 사회적 도덕성(social morality) 차원으로 통합되고, 또 이 차원이 가장 핵심 차원임이 밝혀지므로써(Lew, 1983; Yang & Bond, 1985) 집단주의자들은 이 차원을 중심으로 타인을 평가함이 드러나고 있다. Bond와 Forgas(1984)는 이러한 성격 특성 차원과 대인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중국인들은 호감성을 상호작용 용이성의 지표로 받아들이 이를 친밀관계 형성의 기준으로 삼고, 신뢰성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지표로 받아들이 이를 의존 관계

6) 각 차원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외향성 : 말이 많다(talkative), 솔직하다(frank), 모험적이다(adventurous), 사교적이다(sociable)

호감성 : 선량하다(good-natured), 썬이 없다(not jealous), 온화하다(mild), 협동적이다(cooperative)

신뢰성 : 단정하다(tidy), 믿음직하다(responsible), 건실하다(scrupulous), 참을성 있다(persevering)

정서적 안정성 : 침착하다(poised), 조용하다(calm), 안정되다(composed), 대범하다(not hypochondrical)

세련성 : 예술적이다(artistically sensitive), 지적이다(intellectual), 세련되다(polished), 상상력이 풍부하다(imaginative)

형성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호주인(개인주의자)들은 중국들과는 달리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의존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평가에서 호감성과 신뢰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보다는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에게 친한 친구의 성격 특성을 기술 한 연구들에서 중국의 학생들은 친절함, 타인에의 배려, 상냥함, 겸손함, 이타적임, 정직함, 노력형임, 관대함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Chang, 1983; Chien, 1977), 미국 학생들은 유쾌함, 열성적임, 인기있음, 친절함, 사교적임, 지도력있음, 농담을 잘함, 잘 생김 등을 제시하고 있다(Kuhlen & Lee, 1943)는 점에서도 거듭 드러나고 있다. 매력적인 성격 특성에 관한 이러한 문화 간 차이는 두 문화에서의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의 역동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Stover, 1974).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의 조화로움 유지와 위계적 사회 상황에서의 위치에 적합하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주요 관심은 농담, 주도성 및 자기의 능력과 기술의 표현을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쏠리게 되는 것이다”(Bond & Hwang, 1986, p. 243).

양보·협동-적극성·경쟁 중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집단 내의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를 집단 목표에 복속시켜 개인적인 원망이나 욕구를 억제할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 양보와 협동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원망이나 목표의 추구는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아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에 우선시킨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적극성과 솔직성 및 공

정한 경쟁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문화권에 따른 이러한 자기 표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사회화 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충동의 억제와 집단지향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기 주장을 적극 권장한다(Triandis, 1990). Markus와 Kitayama(1991a)에 의하면,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로부터 통제 의 의미와 자존심의 근거에 대한 문화 간 차이가 유발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억제와 대인 상황에 맞게 자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주도성(agency)을 강조하므로 통제란 결국 내적 욕구나 개인적 목표 및 사적 감정 등 내적 특성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자기 통제와 상황 적응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조화의 유지가 자존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적 속성의 주장과 성취를 강조하므로 통제란 결과적으로 사회 상황이나 외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독특성과 수월성이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 표현 규칙(display rule)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동정·공감 같은 타인중심적 정서(other-focused emotion)의 표현은 권장하지만, 자부심·분노 같은 자기중심적 정서(ego-focused emotion)의 표현은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정서 표현은 솔직성과 진실성의 반영이라고 보아, 분노와 자부심 등도 거리낌 없이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Markus & Kitayama, 1991a, b). 두 문화권에서의 이러한 자기 표현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는 의사소통 양식의 차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Barnlund(1975)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표현의 보류·공식성·침묵·신중함·우회적 표현 등을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인들은 자기 주장·솔직성·비공식성·자발성·다변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노출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노출을 권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표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결국 두 문화권에서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는 특성의 차이를 유발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양보와 협동을 추구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독특성과 수월성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성과 경쟁⁷⁾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갈등 장면에서 양보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좋아하며, 갈등에 직면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는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에 직면하여 경쟁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를 좋아한다는 연구(Triandis, 1989, 1990)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Bond와 Hwang(1986)은 중국인들의 체면 관련 행동(face behavior)은 자기 체면 고양·타인 체면 고양·자기 체면 손상·타인 체면 손상·자기 체면 유지·타인 체면 유지의 6가지 유형으로 자기의 체면 뿐만 아니라 타인 체면의 유지와 고양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반해, 개인주의 사회에서 제시된 자기 제시 이론들⁸⁾은 모두 자기 체면의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양보와 협동을 통한 조화의 유지가 기본이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을 통한 자기 이익 추구가 기본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원 분배의 장면

에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양보와 협동 및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를 전제로 하는 균등규범(equality norm)이나 필요규범(need norm)에 따른 분배를 선호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과 공정한 계산을 전제로 하는 형평규범(equity norm)에 따른 분배를 선호한다는 결과(장성수·이수원·정진곤, 1990; Triandis, 1990; Triandis et. al., 1985)에서도 두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특성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노력-능력 중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맞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정할 것이 요구되므로 상황과 관계에 따른 행위의 가변성을 인정하고 강조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에 맞추어 적합성을 유지하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향이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황과 관계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정된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특히 이렇게 각각 가변적인 노력과 안정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성취 관련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일관성 추구의 동기(consistency-seeking motive)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작용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과 관계에 내재한 역할, 지위 및 책임이고, 개인의 행위는 이러한 역할, 지위 및 책임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행위의 불일치는 문제되지 않고, 따라서 일관성추구의 동기가 작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된 내적 속성이고,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내적 속성의 발현이므로 내적 속성과 행위의 불일치 또는 상황 간 행위의 불일치는 개인의 정체감에 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결

7) Triandis 등(198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주의 성향의 요인분석적 연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주의의 제일요인은 전체 변량의 35.2%를 차지하는 “경쟁을 동반하는 자립”(self-reliance with competition)임을 밝혀, 경쟁이 개인주의 성향을 구성하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8) 이러한 이론들로는 Goffman(1955)의 연출 이론(dramaturgical theory of self-presentation), Alexander 등 (Alexander & Knight, 1971; Alexander & Lauderdale, 1977)의 상황적 정체감 이론(theory of situated identity) 및 Jones(1990)의 전략적 자기 제시 이론(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등이 있다.

과적으로 일관성 추구의 동기가 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b).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 둘이 일치한다는 결과들(Iwao, 1988; Triandis, 1989, 1990)에서 입증되고 있다⁹⁾.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이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 성원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들(Gudykunst, Yoon, & Nishida, 1987; Triandis, 1990 등)도 집단주의 사회에서 일관성 추구의 동기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권에 따른 행위가변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변적인 특성인 노력을 중시하게 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비교적 고정된 특성인 능력을 중시하게 한다.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 노력보다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대인평가에서 미국인들은 능력과 지식을 매우 강조한다는 결과(Korten 1974)나 미국인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저 그런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성격 특성을 기술케 한 연구에서 빈도 10이상인 특성 110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특성 세개는 “지적이다”, “친절하다”,

“노력형이다”로 각각 빈도가 143, 80, 54인데, 이 가운데 두개(지적이다·노력형이다)가 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성이지만, 그 중에서 “지적이다”의 빈도는 “노력형이다”의 빈도보다 3배 가까이 된다는 결과(Rosenberg & Sedlak, 1972)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사회와는 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하는 능력 확인과 독특성의 추구가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결과 개인적 소유(능력이나 업적 등)에 의해 정체감이 규정된다는 사실(Triandis, 1990)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노력을 능력보다 더 중시하고, 따라서 노력이 능력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 김혜숙과 유주란(199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자기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에 귀인하는 사람보다는 노력에 귀인하는 사람이 더욱 따뜻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며(연구 1), 또한 집단의 성공을 자신과 동료의 능력에 귀인하는 사람보다는 노력에 귀인하는 사람이 더욱 따뜻하고, 겸손하며, 유능하기까지 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연구 2). 따라서 이들은 노력귀인자를 능력귀인자보다 더 좋아한다(연구 1과 연구 2).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가변적인 특성인 노력을 고정된 특성인 능력보다 중시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특징(조금호, 1990, 1991, 1994, 1995a; Bond & Hwang, 1986; Kim, 1995)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문화유형에 따른 귀인의 차이

귀인에 관한 연구는 Heider(1944, 1958; Heider & Simmel, 1944)와 Michotte(1952)에 의해 제시된 문제 영역으로, 1960년대에 연구가 시작되어(Bem, 1965; Jones & Davis, 1965; Kelley, 1967) 1970년대에 주로 Kelley(1972a, b)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9) 이 중에서 Iwao(1988; Triandis, 1989, p. 514에서 재인용)의 연구는 특히 흥미를 끈다. 그녀는 일본인과 미국인 피험자들에게 여러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몇가지 가능한 행위를 제시해 주고, 이 가운데서 최선의 반응과 최악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자기 딸이 다른 인종의 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데리고 왔을 때”와 같은 상황에 대해 “속으로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앞에서는 결혼을 찬성하겠다고 말한다”와 같은 선택지를 제시해 주었다. 그 결과 이 행위를 최선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일본에서는 44%, 미국에서는 2%였고, 최악이라고 응답한 피험자는 일본에서는 7%였으나 미국에서는 48%였다. 이는 일본인들은 내적 의견(사적 자기의 내용)과 공개적 행동(공적 자기의 표출)의 불일치를 미국인들과는 달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Kelley에 의한 이러한 귀인 연구의 공식화는 인과 추론의 연구를 사회심리학의 중심 무대에 올려 놓는 계기가 되었다”(Nisbett & Ross 1980, p. 5). 전통적으로 이러한 귀인에 관한 연구들은 귀인 과정, 원리 및 내용의 범문화적 보편성을 전제하는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다 (Jones & Nisbett, 1972; Morris, 1993; Morris, Nisbett, & Peng, 1994; Morris & Peng, 1994; Pettigrew, 1979; Premack, 1990).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귀인의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주목하여 왔으며 (Douglas, 1975; Horton, 1970; Levy-Bruhl, 1926 등), 비교 문화 심리학자들의 연구(예: Triandis, 1972, 1976 등)는 점차 귀인의 문화 차이에 대한 확고한 결과를 제시해 오고 있다 (Kagitcibasi & Berry, 1989). 그리하여, Semin(1980)은 비서구인의 귀인 과정에서 Kelley(1967)의 공변 모형(covariation model)은 그 적합성이 거의 없다고 보므로써 귀인 원칙의 범문화적 보편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통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Moscovici(1981b)는 “모든 인과적 설명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의해 결정된다”(p. 207)고 주장하여 귀인의 문화 구속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Hewstone(1989)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하는 사회”(thinking society; Moscovici, 1981b, 1984)라는 명제는 “귀인하는 사회”(attributing socie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각 문화 집단의 공유 신념 체계에 따라 인간과 그의 행동 목표 및 원인에 대한 사유 체계가 달라지므로, 문화의 차이는 곧 귀인의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대인평가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기술한 대로 두 문화권의 지배적인 인간관에 따라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의존성-자율성 강조), 자기 표현의 양식(자기억제-자기주장 강조) 및 행위의 변이가능성(가변성-안정성 강조)의 측면에서의 서로 다른

조망(강조점)에서 연유하는 것임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두 문화권에서의 귀인 양상의 차이를 이러한 세 측면의 강조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상황-성향 귀인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이 지배적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적 성향보다는 외적·상황적 요인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인간을 파악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사회적 압력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므로써 결과적으로 행동의 상황의존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중심적인 사회 이론(situation-centered social theories)을 소유하게 되어,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내적 성향보다는 상황적 요인에서 찾는 상황주의 편향(situationalist bias)이 특징적인 귀인 양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이 지배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황유리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내적·안정적 성향의 보유자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의 속성(성향)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보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 행동의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중심적인 사회 이론(person-centered social theories)을 소유하게 되어, 행동의 원인을 상황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적 성향에서 찾는 성향주의 편향(dispositionalist bias)이 특징적인 귀인 양식으로 드러나게 된다(Markus & Kitayama, 1991a, b; Morris, 1993; Morris, Nisbett, & Peng, 1994; Morris & Peng, 1994; Zebrowitz, 1990 등).

이러한 두 문화권에서의 귀인 양상의 차이는 타인의 행동 원인의 추론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Miller(1984)는 인도인과 미국인 피험자들에게 잘 아는 사람의 친사회적 행동과 일탈 행동을 각각 2개씩 기술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도록 한 결과, 인도인에게서는 성향 기술과 상황 기술의 비율이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45(각각 22% : 49%), 일탈 행

동의 경우 .47(각각 15% : 32%)이었으나, 미국인에게서는 이 비율이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 1.59(각각 35% : 22%), 일탈 행동의 경우 3.21(각각 45% : 14%)이었다. 이는 타인의 행동 원인을 인도인은 주로 상황에 귀인하고, 미국인은 주로 성향에 귀인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Hamilton과 Sanders(1983) 및 Miller의 다른 연구들(Miller, 1986, 1991; Miller et. al., 1989, 1990, 1992)에서도 그대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Cha와 Nam(1985)은 McArthur(1972)의 재검 연구에서 한국인은 행위자 귀인 편향을 보이지 않고 대상 귀인 편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히므로써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문화권의 귀인 양상의 차이는 사람의 행동 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회적 행동의 귀인에서도 나타나며(Morris, 1993, 연구1), 실험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적 상황에서의 살인 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에서(Morris, 1993, 연구2), 그리고 타인이 기술한 행동 원인의 평가와 반사실적 모사(counterfactual simulation) 상황에서도(Morris, 1993, 연구3)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후의 언어적 설명에서 뿐만 아니라(Morris, 1993, 연구 2와 연구3) 실제 자극의 지각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Morris, 1993, 연구1). Morris 등(Morris, 1993; Morris, Nisbett, & Peng, 1994; Morris & Peng, 1994)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중국인은 상황주의 편향을 보이고, 미국인은 성향주의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 유형에 따른 귀인 양상의 이러한 차이는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타인에 대한 기술에서나(예: Shweder & Bourne, 1984) 자신에 관한 기술에서(예: Cousins, 1989; Miller, 1987) 집단주의자들(인도인 및 일본인)은 상황주의의 편향을 보이지만, 개인주의자들(미국인)은 성향주의의 편향을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Pepitone(1987) 및 Fletcher와

Ward(1988)가 지적하듯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밝혀진 근본적 귀인 오류(Ross, 1977; Nisbett & Ross, 1980)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겸양-자기고양 편향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욕구나 목표의 추구는 집단 내에 갈등을 야기하고 조화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관계에서 자기 억제력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겸양과 조화 및 양보와 협동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인 장면에서 자기은폐(self-effacing)나 자기비하(self-derogation) 같은 겸양 편향(modesty bias)의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 욕구나 목표의 추구는 자율적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따라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강조하게 되므로써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자기 존대를 추구하게 되고, 독특성과 적극성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인 장면에서 자기고양 편향(self-enhancing bias) 또는 자기증진 편향(self-serving bias)이 나타날 것이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itayama et. al., in press).

자존감은 개인이 해당 사회의 문화적 명제(cultural imperative)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지각할 때 증가하는 것이다(Kitayama et. al., in press). 앞에서 보았듯이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는 의존성이다. 따라서, 이 문화에서는 자기의 정적 측면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대신, 부정적 측면은 확인하고 수정해 가므로써 집단의 조화를 도모하는 데에서 자존감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자기은폐나 자기비하의 경향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 사회의 문화적 명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따라서, 이 문화에서는 자기의 부정적 측면은 회피하고 절하하는 대신, 정적 측면은 확인하고 드러내는 데에서 자존감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자기고양 경향이 나온다(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Kitayama & Markus, 1996; Kitayama et. al., in press; Taylor, 1983; Taylor & Brown, 1988).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조화성을 추구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특성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은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평가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허구적 독특성(false uniqueness) 지각 경향에 관한 연구(Brown, 1986;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Markus & Kitayama, 1991b; Myers, 1987), 미국인들은 자기가 타인(동료들)에게 유사한 것보다는 타인(동료들)이 자기에게 더욱 유사하다고 판단하지만(Holyoak & Gordon, 1983), 일본인들은 타인이 자기에게 유사한 것보다는 자기가 타인에게 더욱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asymmetry in similarity judgment)¹⁰⁾에 관한 연구(Kitayama, Markus, Tummala, Kurokawa, & Kato, 1990), 개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집단 이질성-외집단 동질성 지각 경향(Quattrone, 1986 등)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 동질성-외집단 이질성

지각의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연구(Triandis, McCusker, & Hui, 1990)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을 참조로 하는 연관성과 상호의존성 실현의 동기가 우세하게 되어(조공호, 1990, 1991, 1994, 1995a; Bond & Hwang, 1986; Markus & Kitayama, 1991a, b) 결과적으로 자기를 타인과 유사하게 지각하고, 또 사회 관계에서 겸양과 조화를 추구하게 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를 참조로 하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동기가 우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의 독특성을 과대 지각하고, 또 사회 관계에서 자기 존대를 추구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의 대학생에게서 찾아지는 전형적인 자기고양 편향(자기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같은 내적 성향에 귀인, 실패에 대해서는 운이나 과제 곤란도 같은 외적 상황에 귀인)이(Davis & Stephan, 1989;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2; Weiner, 1986 등)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반대의 경향, 즉 자기 성공은 과제 용이도나 운으로, 자기 실패는 노력 부족이나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겸양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결과(Bond & Hwang, 1986; Shikanai, 1978; Takata, 1987; Yamauchi, 1988, 1990 등)가 도출되는 것이다. Takata(1987)는 일본인 대학생들에게 글짜맞추기 검사를 실시한 후 자기 점수와 경쟁 상대의 점수를 귀환 정보로 제시해 주므로써 성공(자기 점수가 상대방보다 높은 조건)과 실패(자기 점수가 상대방보다 낮은 조건)를 조작한 조건에서,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과제의 용이도에 귀인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에 귀인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실험에서의 실패 조건에서는 성공 조건에서보다 검사 결과에 대한 확신도가 더 컸으며, 관련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은 더 작았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과의 차후의 상호작용이 없을 것으로 믿게 한 비공개 상황과 경쟁 상대

10) Tversky(1977)는 마드리드가 뉴욕과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뉴욕이 마드리드와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보다 높으며, 제칼이 개와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개가 제칼과 비슷한 정도에 대한 판단보다 높다는 결과에 더해서, 판단 대상 사이의 유사성 평정은 비대칭적임을 밝혔다. 그는 이를 판단자에게 더 특출하고 중요하며 인지적으로 풍부한 대상을 내현적 참조(implicit reference) 또는 비교의 표준(standard of comparison)으로 삼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덜 특출하고 중요하지 않은 대상(비교의 대상)은 더 특출하고 중요한 대상(비교의 표준)에 더 유사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지만, 역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Holyoak 등(1979)과 Kitayama 등(1990)의 결과는 개인주의자인 미국인들은 동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특출하고 중요한 주의 및 속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집단주의자인 일본인들은 동료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특출하고 중요한 주의 및 속고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제시된 허구적 독특성 지각에 관한 미국인과 일본인의 차이(Markus & Kitayama, 1991b; Myers, 1987)에 관한 결과도 똑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로 대체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기가 열등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러한 정보에의 신뢰도가 저하하고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 대학생들의 결과(Schwartz & Smith, 1976)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서는 자기고양편향 대신 자기은폐 편향 또는 자기비하 편향이 일반적인 사회 비교의 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b).

집단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겸양 편향은 자기 성취에 대한 귀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Snyder, Stephan과 Rosenfield(1976)는 미국의 대학생에게서는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는 전술한 대로 자기고양 편향이 나타나지만, 직접적인 경쟁 상대의 성공에 대해서는 외부(운) 귀인, 실패에 대해서는 내부(기술과 노력) 귀인하는 타인비하 편향(other-derogation bias)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Yamauchi(1988, 1990)는 일본인은 자기 성공에 대해서는 운, 실패에 대해서는 능력과 노력 부족에 귀인하는 겸양 편향을 보이지만, 경쟁 상대의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과 노력에 귀인하고(타인고양 편향, other-enhancing bias) 실패에 대해서는 운에 귀인하는 타인보호 편향(other-protection bias) 또는 타인증진 편향(other-serving bias)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중국인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Bond, Hewston, Wan, & Chiu, 1985; Hewston, Bond, & Wan, 1983). 이렇게 집단주의 사회에서 자기 귀인을 할 때는 겸양 편향이 나타나고, 타인 귀인을 할 때는 타인증진 편향이 나타난다는 결과들은 이 문화권에서는 조화와 양보 등 관계지향적 행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이러한 자기비하와 타인증진 편향은 개인적인 성취 귀인의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 작업 결과에 대한 귀인에서

도 나타나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김혜숙(1995, 인쇄중)은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집단의 작업 결과에 대해 귀인할 때, 집단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동료의 능력이나 노력이 우수하거나 많았기 때문이라 귀인하고, 집단 실패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동료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못했기 때문이라 귀인하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귀인 결과가 공개되는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익명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사회 행위의 근본 원리로서의 겸양의 가치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집단주의자들이 이러한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을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다. Yoshida, Kozo와 Kaku(1982; Markus & Kitayama, 1991a, pp. 242-243에서 재인용)는 일본의 학생들은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이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동료들보다 성격 특성도 더 좋고, 또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므로써 겸양의 특성이 조화를 추구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자기 수행에 대해서는 자기은폐 편향적 귀인자를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자보다 더 좋아하고(Bond, Leung, & Wan, 1982), 집단 수행에 대해서는 타인증진 편향적 귀인자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Bond, Chiu, & Wan, 1984). 이러한 현상은 김혜숙과 유주관(1995)에 의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겸양 편향은 개인주의자들이 보기에 일종의 자기증진(self-promotion)의 한 책략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Cialdini & De Nicholas, 1988; Markus & Kitayama, 1991a; Taylor et. al., 1994). 그러나, 집단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타인고양 편향은 심리적으로 진실한 자기 지각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에 수반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p. 244). 이러한 사실은 앞서 제시한 Takata(1987)의 실험에서 일본인들에게서의 겸양 편향이 비공개 상황이나 컴퓨터 대체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결과와 집단 규범의 내면화에 관한 Bontempo 등 (1990)의 결과(주 5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능력의 탁월성이 자존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고양 행동이 유발되지만, 집단주의자들에게는 사회관계 속에서의 조화의 유지가 자존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겸양을 통한 자기 조절과 억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Heine & Lehman, 1995; Kitayama et. al., in press; Markus & Kitayama, 1991a)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력-능력 귀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다양한 상황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에 비추어 스스로의 행위를 적합하게 조절하는 가변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가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취를 가변적인 노력의 산물로 귀인하는 경향을 낳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사회에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속성이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보므로써, 상황의 변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개인의 성취를 안정적이고 내적인 속성인 능력의 산물로 귀인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학업 성취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 성공이나 실패를 모두 노력에 귀인하지만(성공의 경우에는 열성적 노력, 실패의 경우에는 노력 부족),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학업 성취를 선천적인 능력의 반영이라고 보아 성공이나 실패를 모두 능력에 귀인한다(성공의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 실패의 경우에는 능력 부족)는 연구 결과들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과 미국인의 비교(Hess, Chang, & McDevitt, 1987), 일본인과 미국인의 비교

(Holloway, Kashiwagi, Hess, & Azuma, 1986), 중국인, 일본인과 미국인의 비교(Stevenson, Lee, & Stigler, 1986; Stevenson & Stigler, 1992)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민한 아시아계인(한국인, 필리핀인,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및 기타 동남아시아인)과 미국인의 비교(Mizokawa & Ryckman, 1990)에서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성취를 노력 귀인하는 경향은 적응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즉, 노력은 가변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Weiner, 1979)으로서 성취 결과를 이에 귀인하게 되면 실패를 했을 때 더욱 분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지속적인 실패를 피할 수 있지만, 비교적 고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인 능력(Weiner, 1979)에 귀인하게 되면 실패를 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Mizokawa & Ryckman, 1990). 말하자면, 개인주의자들의 성취 실패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은 “이 학생이 좀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이 수학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을텐데...”(Morris & Peng, 1994, p. 966)라는 것이 되어 문제 해결(상황 개선)의 여지가 없지만, 집단주의자들의 성취 실패에 대한 반사실적 추론은 “이 학생과 선생님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이 수학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을텐데...”(Morris & Peng, 1994, p. 966)라는 것이 되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더 많이 부과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숙제하는 것을 더 많이 도와 주며, 아이들은 숙제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Chen & Stevenson, 1989). 그 결과 중국과 일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동일한 과제에 대한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진다(Stevenson & Stigler, 1992). 즉, 성취 행동에 대한 귀인 양식의 차이가 바로 이러한 학업성취도의 차이

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 합 고 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분명한 것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자기억제·행위가 변성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내집단내의 동조·겸양·호감성(선량함·온화함 등)·신뢰성(믿음직함·건실함·참을성 있음 등)·양보·협동·과묵함·노력 등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율성·자기주장·안정성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수월성·전문성·외향성(다변·솔직함·모험적임·사교적임 등)·정서적 안정성(침착함·냉정함 등)·주도성·적극성·자발성·유능함·세련됨·창의성 등의 특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인평가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사회행위의 원인을 추론하는 귀인 양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성향에서 찾지 않고, 그의 사회관계·역할·상황적 압력 등의 상황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높아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근본적 귀인 오류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은폐나 자기훼손 및 타인고양이나 타인보호 등 겸양 편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성취 장면에서는 가변적이고 통제 가능한 노력에의 귀인 양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행위의 원인을 상황적 요인보다는 행위자의 내적 속성인 성향으로 귀인하는 근본적 귀인 오류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자기고양과 타인훼손을 통한 자기증진 편향이 나타나며, 성취 장면에서는 선천적이고 비교적 고정적인 능력에의 귀인 양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두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적 차이는 두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경험되며, 전수되

는 세상사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상이한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문화는 세상사에 대한 경험과 표상을 구조화하는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 체계(D'Andrade, 1981, 1984; Miller, 1984)이기 때문에, 문화의 차이는 곧바로 세계관과 인간관의 차이로 연결된다. 바로 이러한 조망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이 제공하는 소여 특성에 대한 서로 다른 지각적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어 서로 다른 특성에 민감하게 되고(McArthur & Baron, 1983), 결과적으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문화권에 따른 대인평가와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 양식의 차이가 유발되는 것이다.

문화유형과 대인평가의 우월성 및 정교화
필자는 선행 논문(조공호, 1993)에서 문화유형에 따른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를 대인평가 특성의 우월성가설과 대인평가 결과의 정교화가설을 통해 설명하려는 몇가지 시안¹¹⁾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우월성가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조망에 따라 대인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것으로 탐색되는 특성(우월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교화가설은 이러한 문화에 따라 중시되는 우월특성과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는 부차특성에 대한 인상평가 결과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조망에 따라 탐색되는 우월특성의 인물에 대해서는 더 극단적이고 정교화된 인상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집단주의 사회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인간관의 차이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기대하고 강조하는 특성이 달라짐을 보았다.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조화성·단결심·겸양·신뢰성·과묵함·노력·협동·신중함 등의 특성이 중시되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독특성·자율성·외향성·적극성·능력·경쟁·창의력 등의 특성이 중시된다. 이러한 현

11) 필자의 선행 논문(1993)에서는 규범모형, 문화모형, 통합모형이 시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 중 본고의 논리 전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문화모형의 논지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표2. 문화유형에 따라 중시되는 대인평가 특성(1)과 귀인 양상(2)의 차이

차 원	집단주의 (관계중심적 인간관)	개인주의 (개인중심적 인간관)
사회 행위의 원동력과 목표	의존성 강조 1) 조화성 중시 2) 상황 귀인 우세	자율성 강조 1) 독특성 중시 2) 성향 귀인 우세
자기 표현의 양식	자기 억제 강조 1) 양보, 협동 중시 2) 겸양 편향 우세	자기 주장 강조 1) 적극성, 경쟁 중시 2) 자기고양 편향 우세
행위의 변이가능성	가변성 강조 1) 노력 중시 2) 성취 결과의 노력 귀인 우세	안정성 강조 1) 능력 중시 2) 성취 결과의 능력 귀인 우세

상은 우월성가설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서로 다른 문화적 조망이 대인평가 과정에서 탐색되는 우월특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적 조망에 따라 탐색되는 우월특성이 달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월특성의 인물과 부차특성의 인물에 대한 인상평가의 차이가 유발될 것임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자들은 겸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을 자기고양 편향적 귀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며(김혜숙·유주란, 1995; Bond, Chiu, & Wan, 1984; Bond, Leung, & Wan, 1982; Yoshida, Kozo, & Kaku, 1982), 자신과 집단의 성공에 대해 노력에 귀인하는 사람을 능력에 귀인하는 사람보다 더 따뜻하고, 겸손하며, 유능하다고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전자를 후자보다 더 좋아한다는 결과(김혜숙·유주란, 1995)에 의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도력에 관한 문화 비교 연구에서 집단주의 사회의 조직원들은 과제의 특성이나 응답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대체로 과제지향적 지도자(task-oriented leader)보다는 가부장적인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관계지향적 지도자(relationship-oriented leader)를 더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또 더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조금호, 1997; Bond & Hwang, 1986; Misumi, 1985). 이러한 인물 선호의 문화차 현상은 상기한 정교화 가설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집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문화적 조망에서 강조되는 우월특성인 겸양과 노력 귀인의 인물 및 그러한 특성의 보유자인 관계지향적 지도자를 부차특성을 가진 인물(자기고양적 귀인자, 능력 귀인자, 과제지향적 지도자)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서두에서 문화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자기관이 개인의 심리적 경향으로 변형되어 타인이해 양상의 제반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집단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논술했었다. 이러한 집단적 구성주의의 두가지 전제(Kitayama et. al., in press) 중 첫째는 문화적 자기관에 합치하는 사회상황의 산출(역사적 과정)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구성된 문화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개인의 발달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해당 문화에서 추구하는 문화적 명제로서의 자기관에 합치되는 사회상황들로 구성된 문화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해당

문화의 문화적 명제로서의 자기관에 조율된 다양한 심리 과정과 경향이 발달된다는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에 조율된 심리 과정이 곧 문화유형에 따른 대인평가 특성의 우월성가설과 대인평가 결과의 정교화가설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폭넓은 사색과 고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집단주의-개인주의 개념들의 문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틀로 문화유형을 나누고, 각 문화권에서의 타인 이해의 차이를 조감해 왔다. 이는 이 분류 체계가 Hofstede(1980)에 의해 제시된 이래, 1980년대 이후 문화 비교의 연구를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어 왔기(Kagitcibasi, 1994) 때문이었다.

이러한 집단주의-개인주의의 분류 체계에 의한 많은 문화 비교 연구들의 결과,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성격이나 직접적인 상황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함이 실증되었으며, 또한 서구 특히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밝혀진 심리학의 제 원리가 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게 되었다(한규석, 1991b).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 문화 간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에 의해 문화 간의 차이를 모두 드러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세계 66개국(53개 문화권)의 10만명 이상의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을 확인하여 문화 비교 연구에서의 이 개념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Hofstede(1980)의 연구에서도, 이 이외에 문화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차원으로 사회 내의 권력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인 권력 거리(power distance) 차원, 불확실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강도인 애매성 회피(ambiguity avoidance) 차

원, 그리고 자기주장·물질 등의 남성적 가치를 선호하는 정도인 남성성(masculinity) 차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더우기 Hofstede(1980)의 분석에서는 권력거리 요인과 개인주의 요인은 매우 높은 부적 상관($r = -.67$)을 보이지만, 개인주의와 모호성 회피, 개인주의와 남성성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집단주의-개인주의의 체계 이외에도 모호성 회피와 남성성을 중요한 문화 분류 체계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Triandis(1989)는 집단주의-개인주의 이외에도 한 사회 내에서의 가능한 관계의 수로 개념화되는 복잡성(complexity) 차원과 내집단 규범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엄격성의 정도인 치밀성(tightness) 차원에 따라 문화차가 규정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역사 전개 과정에서의 각 사회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복잡성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간에는 엮어진 U자 형태의 곡선적인 관계가 있고, 엄격성과 집단주의 간에는 약한 직선적 관계가 있으며, 복잡성과 치밀성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고, 이 세 차원의 문화 분류 체계에 따라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관의 차이를 논술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하위 문화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문화권 내의 개인들 간에도 이 두 가지 경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Triandis(1990)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집단주의를 가족의 목표에만 관심을 갖는 가족중심주의(familism)와 더 넓은 공동체의 목표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적 집단주의(communitarian collectivism)로, 개인주의를 개인의 목표만 추구하는 자기에적 개인주의(narcissistic individualism)와 개인의 목표가 공동체의 목표와 통합되는 공동체적 개인주의(communitarian individualism)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Triandis 등(1985)은 문화 수준에서

의 집단주의-개인주의와는 별도로 개인 수준에서의 타인중심성(allocentrism)-자기중심성(ideocentrism)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문화 수준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와 개인 수준에서의 타인중심성-자기중심성의 조합(2×2)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제반 특징과 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집단주의-개인주의 이외에도 문화 분류 체계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류 체계 사이의 비교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할 당위성이 도출된다. 게다가 하나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규정하는 데 따르는 위험도 경계해야 할 것이며,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의 개인적인 영향이나 개인차의 문제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에서 하나의 문화권에서 밝혀진 결과를 다른 문화권으로 일반화하려 할 때는 더욱 커다란 주의를 해야 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최근에 공수자와 한규석(1996)은 집단주의-상황귀인 : 개인주의-성향귀인의 명제를 밝혀낸 대표적인 문화 비교 연구의 하나인 Miller(1984)의 연구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검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일반화의 조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한국인 피험자들은 타인에 대해 경험한 행동을 귀인하게 했을때는 인도인보다는 미국인과 유사하게 상황귀인 비율보다 성향귀인 비율이 높아서(이타 행동의 경우 각각 25%와 41%; 일탈행동의 경우 각각 24%와 52%) 위의 명제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일탈행동을 심각성을 달리하여 각본으로 제시하고 이를 귀인하게 하면 미국인보다는 인도인과 유사하게 상황귀인 비율이 성향귀인 비율보다 2~6배 이상 높아져(위급한 상황의 경우 각각 27%와 13%; 중간 상황의 경우 각각 67%와 11%; 사소한 상황의 경우 각각 63%와 12%) 위의 명제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었다. 행동의 종류에 따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는

집단주의 사회라고 해서 항상 상황귀인만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유보조건을 달게 하는 결과로, 문화 비교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의 문화권간 일반화 문제의 어려움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

문화 연구의 방법론의 문제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문화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어쩔 수 없이 Berry(1969)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 — 문화특수적 접근(emic approach)과 문화보편적 접근(etic approach) — 중 문화특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속한 문화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문화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장 잘 기술하는 방법은 그 문화에서 사용되는 개념 체계로 기술하는 것”(Triandis, Malpass, & Davidson, 1973, p. 357)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특수적 접근에서 얻은 자료는 불행히도 문화 간 비교가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의상 한 특정 문화에서 개발된 개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반해 “보편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어진 현상을 연구하는”(Triandis et. al., 1973, p. 357) 문화보편적 접근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문화 간 비교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잘못하면 의사 문화보편적 접근(pseudoetic approach)이 되기 쉬운 위험도 있다(Triandis, 1972; Triandis et. al., 1973; Yang, 1986). 이는 한 문화,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화특수적인 특정 도구(emic measures)를 문화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연구를 하는 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특수적인 접근을 고집하게 되면 한 문화 집단의 이해에는 공헌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간 일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화 집단에의 연구가 모두 이루어진 후이거나 또는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모든 문화 집단에서 재검해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Bond

& Hwang, 1986).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접근의 조합의 방법이다(Bond & Hwang, 1986; Triandis et. al., 1973). 이 방법은 예를 들면, “지각 선택성과 같은 기본적인 심리 과정은 문화 간에 보편적이지만, 어떤 유형의 자극이 선택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보편적 과정의 실제적인 내용은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다”(Triandis et. al., 1973, p. 371)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다. 즉, 문화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또는 개념을 선정하여 각 문화권 별로 그 현상 또는 개념에 대한 문화특수적인 측정 도구를 개발해서 각 문화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번역이나 측정 단위 및 복잡성의 문제 등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 문화보편적인 과정의 측면과 문화특수적인 내용의 측면이 함께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와 인지, 정서 그리고 동기 본고의 첫머리에서 사회심리학의 최근 흐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사회성의 회복 운동”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사회성의 회복 운동과 함께 최근 사회심리학,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인지 분야의 연구를 특징짓는 흐름은 “역동성의 회복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동성의 회복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을 포함한 세계를 이해하고, 느끼고, 그 바탕 위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실체”(민경환, 1994, p. 23)인 자기(self)에 관한 관심의 증대이고(Goethals & Strauss, 1991), 또 하나는 인간 행동의 열소적 요인(hot factors, Markus & Zajonc, 1985)인 동기와 정서에 대한 관심의 회복이다(Fiske, 1993; Fiske & Taylor, 1991; 조은경, 1994).

최근 심리학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Sears 등의 사회심리학 교과서 제7판(Sears, Peplau, & Taylor, 1991)까지와는 달리 제8판(Taylor, Peplau, & Sears, 1994)에서는 “자기”에 관한 연구가 독립된 장(제5장)

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Fiske와 Taylor의 사회인지 연구서에서도 제1판(1984)에서와는 달리 제2판(1991)에서는 “사회인지와 자기”에 관한 독립된 장(제6장)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앞에서도 누차 언급되고 있듯이 자기 이해의 문제는 타인이해의 문제와 함께 문화유형에 따른 인간관의 차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자기에 대한 이해의 문화차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Markus & Kitayama, 1991a, b, 1994b; Triandis, 1988; Triandis et. al., 1988 등), 본고에서도 이 문제는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사회심리학계에서의 동기와 정서에 대한 관심의 회복은 최근 10여년 간의 사회심리학의 연구의 특징을 “목적지향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인 인간형에 대한 주목…… 즉, 동기와 정서의 부각”(조은경, 1994, pp. 39-40)이라고 표현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사회심리학은 출발 초기부터 인지론적이었으므로, 사회적 자극과 반응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인간을 사회적 사고자(social thinker)로 보는 전통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사회적 사고자로 인간을 보는 전통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인지와 동기 및 정서 사이의 관계에 있었다(Fiske & Taylor, 1984, 1991).

이렇게 사회적 사고자로 인간을 보는 입장의 초기(1950년대)에는 인간을 일관성 추구자(consistency seeker)로 보아 근본적으로 행동의 제일원인을 불일치 해소 동기로 보는 동기론적 관점이 우세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귀인 과정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인지 자체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는 입장들에 의해 동기에 대한 관심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합리적, 논리적으로 행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론하고 분석하는 존재라고 보는 일상적 과학자(naive scientist)로서의 인간 과학의 입장이 대두되었는데, 여기서 동기와 정서 같은 열소적 요인은 냉류적 정보 처리 과정(cold information processing, Markus & Zajonc, 1985)에서 작용하는 오염 변인일 뿐인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사회 추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인지적 절약자(cognitive miser)로 인간을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은 비록 여러 가지 인지적 한계와 결함을 안고 있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존재라고 보며, 이 입장에서는 인지적 편향과 오류도 인간의 인지 체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봄으로써 행동 과정에서의 동기와 정서의 역할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행동을 순전히 인지의 함수로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기와 정서 같은 열소적 요인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들은 인지 과정에 선행하는 심리 내용으로서 (Zajonc, 1980), 인간은 동기와 정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고하고 인지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동기적 책략가(motivated tactician)로서의 인간 파악의 입장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연구의 초점이 인지 능력의 제약에 의존된 인지 과정으로부터 지각하는 주체의 목적, 동기 및 정서로 되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기와 정서가 인지 책략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 인지보다 동기와 정서에 더 무게를 두는 초기의 입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Fiske, 1993; Fiske & Taylor, 1991).

최근의 문화 비교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기와 정서의 체계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짐이 확인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a, b, 1994b; Triandis, 1989, 1990, 1994; Yang, 1986 등).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문화유형에 따라 동기와 정서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문화권에 따른 인간관과 자기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Markus & Kitayama, 1991a, b, 1994b; Triandis, 1989, 1994).

본고에서는 타인 이해 양상의 문화차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와 인지 사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왔다. 그러나, 문화는 그 자체 하나의 긴장 체계

(tension system)로서 이에 따라 인간 행동의 역동성이 달라진다(Ross & Nisbett, 1991)는 사실에서 보면, 문화와 인간 행동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따른 동기와 정서의 차이 및 문화권에 따른 인지와 동기 및 정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수자·한규석 (1996). 한국인의 인물파악 경향 : 문화비교적 조명. **국제한국학회지**, 1, 89-104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존중이 자기고양귀인과 집단고양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1), 45-63.
- 김혜숙 (인쇄중).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존중이 경쟁상황에서의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귀인에 미치는 영향. **아주사회과학논총**(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
- 김혜숙·유주란 (1995). 자기고양귀인과 집단고양귀인이 귀인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2), 51-67.
- 남기덕 (1994). 동맹 협상에서 상황 맥락이 동맹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2), 70-84.
- 민경환 (1986). 사회심리학의 방법론 논쟁. 김경동·안정시 편, **한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경환 (1994). Self의 세 성분 : 인지, 정서, 그리고 의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1), 22-39.
- 이수원 (1984). 한국인의 인간관계 구조와 정. **교육논총**(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 95-125.
- 이수원 (1990). 내면화 : 사회적 지식의 형성.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9(1), 54-73.

- 장성수 · 이수원 · 정진곤 (1990). 한국인의 인간 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한양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 217-265.
- 정양은 (1988). 조직에서의 인간관계. **사회심리학 연구**, 4(1), 1-13.
- 조금호 (1986).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고려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 197-223.
- 조금호 (1990).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I) :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5(1), 59-81.
- 조금호 (1991). 맹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II) : 교육론과 도덕실천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1), 73-108.
- 조금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 대인평가 이원모형의 확대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24-149.
- 조금호 (1994). 순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I) : 친인관계론에 기초한 연구 방향의 정초.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1), 34-54.
- 조금호 (1995a). 순자에 나타난 심리학적 함의 (II) : 인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1), 1-25.
- 조금호 (1995b). 문화와 인지 : 타인이해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 연구의 통합적 탐색**. 서울 : 한국심리학회.
- 조금호 (1997). 상사의 특성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 김명언 · 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 서울 : 오름.
- 조은경 (1994). 사회심리학의 최근 동향 : 동기 와 정서의 복귀. 한국심리학회편, **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 : '94**, 서울 : 한국심리학회.
- 최상진 (1990).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회과학연구**(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133-176.
- 최상진 (1993).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적 심리학의 탐색**. 서울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규석 (1991a).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1), 132-155.
- 한규석 (1991b).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0(1), 1-19.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Alexander, C. N., & Knight, G. W. (1971). Situated identities and social psychological experimentation. *Sociometry*, 34, 65-82.
- Alexander, C. N., & Lauderdale, P. (1977). Situated identities and social influence. *Sociometry*, 40, 225-233.
- Asch, S.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arnlund, D. C.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kyo, Japan : Simul Press.
- Bem, D. J. (1965). An experimental analysis of self-percep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99-218.
- Berry, J. W. (1969). On cross-cultural compar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 119-128.
- Bond, M. H. (1979). Dimensions of personality used in perceiving peers :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Hong Kong, Japanese, American and Filipino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4, 47-56.
- Bond, M. H. (Ed.) (1986).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Chiu, C. K., & Wan, K. C.

- (1984). When modesty fails : The social impact of group-effacing attributions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335-338.
- Bond, M. H., & Forgas, J. P. (1984). Linking person perception to behavior intention across cultures : The role of cultural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337-352.
- Bond, M. H., Hewston, M., Wan, K. C., & Chiu, C. K. (1985). Group-serving attributions across intergroup contexts : Cultural differences in the explanation of sex-typed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435-452.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M. H., Leung, K., & Wan, K. C. (1982). The social impact of self-effacing attributions : The Chinese ca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8, 157-166.
- Bond, R.,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1952b,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 111-131
- Bontempo, R., Lobel, S. A., & Triandis, H. C. (1990). Compliance and value internalization in Brazil and the U. S. : Effects of allocentrism and anonym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200-213.
- Brislin, R. W., Lonner, W. J., & Thorndike, R. W. (1973). *Cross-cultural research methods*. New York : Wiley.
- Brown, J. D. (1986). Evaluations of self and others : Self-enhancement biases in soci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4, 353-376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New York : Plenum.
- Cha, J. H., & Nam, K. D. (1985).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
- Chang, W. J. (1983). *The prediction of junior high-school students' sociometric status from some psycho-soci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 Chen, C., & Stevenson, H. W. (1989). Homework : A cross-cultural examination. *Child Development*, 60, 551-561.
- Chien, M. (1977). Factors related to peer interaction among school children in urban and rural areas. *Psychological Testing*, 24, 32-40.
- Chung, Y. E. (1994). Void and non-conscious processing.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 Dong-A.
- Cialdini, R. B., & De Nicholas, M. E. (1989). Self-presentation by assoc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626-631.
-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Cousins, S. (1989). Culture and selfhood in Japan and the U. 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D'Andrade, R. G. (1981). The cultural part of cognition. *Cognitive Science*, 5, 179-195.

- D'Andrade, R. G. (1984). Cultural meaning systems. In R. A. Shweder & R. A. Levine (Eds.), *Culture theory :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M. H., & Stephan, W. G. (1980). Attributions for exam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235-248.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oob, L. W. (1980). The inconclusive struggles of cross-cultural psycholog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1, 59-73.
- Douglas, M. (1975). *Implicit meanings : Essays in anthropology*. Longdon, England : Routledge & Kegan Paul.
- Dumont, L. (1970). *Homo hierarchicus*. Chicago,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ske, A. P. (1990). *Making up society : The four elementary relational structures*. New York : Free Press.
- Fiske, S. 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 Fiske, S. T., & Taylor, S. E.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 : Addison-Wesley.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 McGraw-Hill.
- Fletcher, G. J. O., & Ward, C. (1988). Attribution theory and process :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M. H. Bond(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 Sage.
- Frager, R. (1970). Conformity and anticonformity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03-210.
- Gergen, K. J. (1973). Social psychology as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6, 309-320.
- Gergen, K. J. (1985). Social constructionist inquiry : Content and implications. In K. J. Gergen & K. E. Davis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 Springer-Verlag.
- Gergen, K. J., & Davis, K. E.(Eds)(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 Springer-Verlag.
- Gergen, K. J., & Gergen M. M. (1988). Narrative and the self as relationship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1). New York : Academic Press.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a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oethals, G. R., & Strauss, J. (1991). The study of the self :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temporary issues.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 Springer-Verlag.
- Goffman, E. (1955). On face-work : An analysis of ritual elements in social interaction. *Psychiatry*, 18, 213-231.
- Goffman, E. (1961). *Asylums*. Garden City, NY : Anchor Books.
- Greenberg, J., Pyszczynski, T., & Solomon, S. (1982). The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 Beyond self-presentation. *Journal*

-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56-67.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J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3). Hillsdale, NJ : Erlbaum.
- Gudykunst, W. B., Yoon, Y., & Nishida, D. (1987).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n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in ingroup and outgroup relationships. *Communication Monographs*, 54, 295-306.
- Hamilton, V. L., & Sanders, J. (1980). Universals of judging wrongdoing : Japanese and Americans compar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9-211.
- Heider, F. (1944).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ogical Review*, 51, 358-37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 Heider, F., & Simmel, M. (1944). An experimental study of appar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7, 243-249.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ss, R. D., Chang, C. M., & McDevitt, T. M. (1987). Cultural variations in family beliefs about children's performance in mathematics : Comparisons among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Americans, and Cauc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179-188.
- Hewstone, M. (1989). *Causal attribution : From cognitive processes to collective beliefs*. Oxford, England : Basil Blackwell.
- Hewstone, M., & Bond, M. H., & Wan, K. C. (1983). Social facts and social attributions : The explanation of intergroup differences in Hong Kong. *Social Cognition*, 2, 142-157.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83).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n fifty countries and three regions. In J. B. Derogowski, S. Dziurawiec, & R. C. Annis(Eds.), *Explor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Netherlands : Swets & Zeitlinger.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 McGraw-Hill. [차재호 ·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 학지사.]
- Holloway, S. D., Kashiwagi, K., Hess, R. D., & Azuma, H. (1986).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and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about performance in mathema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1, 269-286.
- Holyoak, K. J., & Gordon, P. C. (1983). Social reference poi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881-887.
- Horton, R. (1970). African traditional thought and Western science. In B. R. Wilson (Ed.), *Rationality*. Oxford, England : Basil Blackwell.
- Hsu, F. L. K. (1971). Psychological homeostasis and jen : Conceptual tools for advancing psych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73, 23-44.

- Hui, C. H. (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on Personality*, 22, 17-36.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Iwao, S. (1988, August). *Social psychology's models of man : Isn't it time for East to meet West?* Invited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Scientific Psychology, Sydney, Australia.
- Jones, E. E. (1985). Major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during the past five decades.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1). New York : Random House.
- Jones, E. E.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New York : Freeman.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 New York : Academic Press.
- Jones, E. E., & Gerard, H. B. (1967).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 Wiley.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Kagitcibasi, C. (1994). A critical appraisal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oward a new formulation.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 Sage.
- Kagitcibasi, C., & Berry, J. W. (1989). Cross-cultural psychology : Current research and tren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0, 493-531.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B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elley, H. H. (1972a). Causal schemata and the attribution process.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Kelley, H. H. (1972b). Attribution in social interaction.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Eds.), *Attribution :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 General Learning Press.
- Kim, U.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psychological, cultural and ecological analysis*. Nordic Institute of Asian Studies(NIAS) Report Series, No. 21. Copenhagen, Denmark : NIAS Books.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C., & Yoon, G. (Eds.)(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 Sage.
- Kitayama, S., & Markus, H. R. (Eds.)(1994).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 Association.
- Kitayama, S., & Markus, H. R. (1996). Construal of self as a cultural frame :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izing psychology. In J. D'Arms, R. G. Hastie, S. E. Hoelscher, & H. K. Jacobson (Eds.), *Becoming more international and global : Challenges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Ann Arbor, MI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 Lieberman, C. (1995). The collective construction of self-esteem : Implications for culture, self and emotion. In J. Russel, J. Fernandez-Dols, T. Manstead, & J. Wellenkamp (Eds.), *Everyday conceptions of emotion : An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of emotions*. Dordrecht,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in press).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of self-esteem management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depreciation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Kitayama, S., & Markus, H., Tummala, P., Kurokawa, M., & Kato, K. (1990). *Culture and self-cogni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 Korten, F. F. (1974).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sex on the perception of pers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9, 31-44.
- Kuhlen, R. G., & Lee, R. J. (1943).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acceptabi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4, 321-340.
- Kuhn, M. H. & McPartland, T. S. (195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elf-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68-76.
- Levy-Bruhl, L. (1926). *How natives think*. London, England : Allen & Unwin.
- Lew, W. J. (1983). Personality traits of Hong Kong secondary school teachers. *Chinese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11, 36-46.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depression :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 Maine, H. (1963). *Ancient law*. Boston, MA : Beacon.
- Manis, M. (1975). Is social psychology really differ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 427-436.
- Manis, M. (1977). Cognitive social psychology. *Person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550-56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Eds.), *The self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 Springer-Verlag.
- Markus, H. R., & Kitayama, S. (1994a).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arkus, H. R., & Kitayama, S. (1994b).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Emotion and culture : Empirical investigations of mutual influence*.

-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rkus, H. R., & Zajonc, R. B. (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Vol. 1). New York : Random House.
- Matsuda, N. (1985). Strong, quasi-, and weak conformity among Japanese in the modified Asch proced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83-97.
- McArthur, L. Z. (1972). The how and what of why : Som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171-193.
- McArthur, L. Z., & Baron, R. M. (1983). Toward an ecological theory of soci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90, 215-247.
- Michotte, A. E. (1952). *The perception of causality*. New York : Basic Books.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 G. (1986). Early cross-cultural commonalities in social explan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514-520.
- Miller, J. G. (1987). Cultural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onceptual differentiation in person descrip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5, 309-310.
- Miller, J. G. (1991).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morality of beneficen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nual*, 15, 11-23.
- Miller, J. G., & Bersoff, D. M. (1992). Cultural and moral judgement :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Miller, J. G., Bersoff, D. M., & Harwood, R. L.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 Moral imperatives or personal deci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Miller, J. G., & Luthar, S. (1989). Issues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moral judgement. *Social Cognition*, 3, 237-261.
- Mills, J., & Clark, M. S. (1982).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 3). Beverly Hills, CA : Sage.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 Wiley.
- Misumi, J. (1985). *The behavioral science of leadership : An interdisciplinary Japanese research program*. Ann Arbor, MI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izokawa, D. T., & Ryckman, D. B. (1990). Attributions of academic success and failure : A comparison of six Asian-American ethnic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 434-451.
- Morris, M. W. (1993). *Culture and cause : American and Chinese understandings of physical and social caus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Morris, M. W., Nisbett, R. E., & Peng, K. (1994). Causal attribution across domains and cultures. In G. Lewis, D. Premack, & D. Sperber(Eds.), *Causal understandings*

- in cognition and culture*. Oxford, England :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Moscovici, S. (1981a). Forward. In P. Heelas & A. Lock(Eds.), *Indigenous psychologies : The anthropology of the self*. London, England :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1b). On social representation. In J. P. Forgas(Ed.), *Social cognition :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London, England :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yers, D. (1987).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 : McGraw-Hill.
- Nisbett, R. E., & Ross, L. (1980). *Human inference : Strategies and shortcomings in social judge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Norman, W. T.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Peevers, B. H., & Secord, P. F. (1973). Developmental changes in attribution of descriptive concepts to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20-128.
- Pepitone, A. (1987). The role of culture in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In C. Kagitcibasi(Ed.), *Growth and progres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Lisse, Netherlands : Swets & Zeitlinger.
- Pepitone, A., & Triandis, H. C. (1987). On the universality of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471-498.
- Pettigrew, T. F. (1979).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461-476.
- Premack, D. (1990). The infant's theory of self-propelled objects. *Cognition*, 36, 1-16.
- Quattrone, G. A. (1986). On the perception of a group's variability. In S. Worchel & W. 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IL : Nelson-Hall.
- Rosenberg, S., & Sedlak, A. (1972). Structural representatives of perceived personality trait relationships. In A. K. Romney, R. N. Shepard & S. B. Nerlove(Eds.), *Multidimensional scaling : Theory and applications in the behavioral sciences*(Vol. 2). New York : Seminar Press.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0). New York : Academic Press.
- Ross, L., & Nisbett, R. E.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Sampson, E. E. (1977). Psychology and the American ide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762-782.

- Sampson, E. E. (1978). Scientific paradigms and social values : Wanted-A scientific revol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32-1343.
- Sampson, E. E. (1983). *Justice and the critique of pure psychology*. New York : Plenum.
- Sampson, E. E. (1989).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for psychology : Globalization and psychology's theory of the person. *American Psychologist*, 44, 914-921.
- Schlenker, B. (1974).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1-15.
- Schneider, D. J., Hastorf, A. H., & Ellsworth, P. C. (1979). *Person perception*(2nd ed.). Reading, MA : Addison-Wesley.
- Schwartz, B. (1986). *The battle of human nature : Science, morality and modern life*. New York : Norton.
- Schwartz, J. M., & Smith, W. P. (1976). Social comparison and the inference of ability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268-1275.
- Sears, D. O., Peplau, L. A., & Taylor, S. E. (1991). *Social psychology*(7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Semin, G. R. (1980). A gloss on attribu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91-300.
- Shepard, R. (1987). Toward a universal law of generaliz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Science*, 237, 1317-1323.
- Shikanai, K. (1978). Effects of self-esteem on attribution of success-failure. *Japane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47-55.
- Shweder, R. A. (1990). Cultural psychology : What is it? In J. W. Stigler, R. A. Shweder, & G. Herdt(Eds.), *Cultural psychology :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Bourne, E.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 A. Shweder & R. A. Levine(Eds.), *Culture theory :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 Miller, J. G. (1985).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 How is it possible? In K. J. Gergen & K. E. Davis(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erson*. New York : Springer-Verlag.
- Snyder, M., Stephan, W. G., & Rosenfield, D. (1976). Egotism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35-441.
- Stevenson, H. W., Lee, S. Y., & Stigler, J. W. (1986). Mathematics achievement of Chinese,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 *Science*, 231, 693-699.
- Stevenson, H. W., & Stigler, J. W.(1992). *The learnign gap*. New York : Summit Books.
- Stover, L. E. (1974). *The cultural ecology of Chinese civilization*.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 Tagiuri, R. (1969). Person perception. In G. Lindzey & E. Aronson(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2nd ed., Vol. 3). Reading, MA : Addison-Wesley.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categories :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ta, T. (1987). Self-deprecatave tendencies in self-evaluation through social comparison. *Japanese Journal of*

-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7-36.
-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Peplau, L. A., & Sears, D. O. (1994). *Social psychology* (8th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Toennies, F. (1957). *Community and society* (C. P. Loomis, Trans.). East Lansing, MI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72). *Th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New York : Wiley.
- Triandis, H. C. (1976). *Variations in black and white perceptions of the social environment*. Urbana, IL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Triandis, H. C. (1978). Some universals of 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1-16.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of cross-cultural psychology. In G. K. Verma & C. Bagley (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London, England : Macmillan.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Lincoln, NB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Major cultural syndromes and emotion. In S. Kitayama & H. R. Markus (Eds.), *Culture and emotion :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e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alpass, R. S., & Davidson, A. (1973). Psychology and cultu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4, 355-378.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versky, A. (1977). Features of similarity. *Psychological Review*, 84, 327-352.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 3-25.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and motiva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 Weldon, E. (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Wyer, R. S., Jr., & Carlston, D. E. (1979). *Social cognition, inference, and attribution*. Hillsdale, NJ : Erlbaum.

Yamauchi, H. (1988). Effects of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 619-626.

Yamauchi, H. (1990). Actor and observer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non-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a*, 33, 212-219.

Yang, K. 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159-170.

Yang, K. S. (1986). Chinese personality and its change. In M. H. Bond(Ed.), *The psychology of the Chinese people*. Hong Kong : Oxford University Press.

Yang, K. S., & Bond, M. H. (1985). Dimensions of Chinese person perception : An emic approach. In C. Chiao(Ed.),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hinese Modernization and Chinese Culture*. Hong Kong : Chinese University Press.

Yoon, G., & Choi, S. C.(Eds.)(1994).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 :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Seoul : Dong-A.

Yoshida, T., Kojo, K, & Kaku, H. (198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presentation in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0, 30-37.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Zebrowitz, L. A. (1990). *Social perception*.

Culture and Person Perception

Geung-Ho Cho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diverging effects of different cultural views of person in general, especially the self, on the cues drawing and biases operating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others in interaction situations. From the review of the massive articles concerning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search area of person evaluation and attribution, it was found that cultural views of person in general and the self as independent being, predominant in the individualistic cultures, or as interdependent being, predominant in the collectivist cultures, foster and encourage cross-culturally divergent psychological tendencies. In individualistic cultures, traits increasing and promoting autonomy, self-assertion, and stability of an independent individual are stressed in evaluation of him/her, and thus the tendency of self-enhancement becomes the dominant mode of attribution ; in collectivist cultures, traits serving and contributing the maintenance of harmony between members of an ingroup, effacing oneself and adjusting to situational mandates are stressed in evaluation of him/her, and thus the tendency of self-depreciation and other-enhancement becomes dominant mode of attribution.